

어느 中小企業의 電算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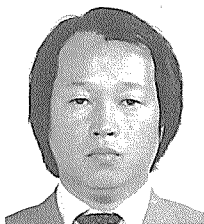
얼마전 모 회사의 전산업무 용역에 관련된 분쟁(?)에 관여한 일이 있었다.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회계업무 전산화를 3개월후 납품하기로, 계약금으로 전체 용역비의 반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납기 1주일 전 메모(MEMO)를 보았더니 요청한 업무와 딴 판이라 이것저것 수정요청을 하였더니, 납기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다가 한달쯤 뒤에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겠다고 연락이 왔다 한다.

발주 회사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본 즉, 개발요청 사항은 전반적인 회계업무였고, 계약된 용역비는 PC용 소프트웨어개발 용역비 정도였으며, 계약서에는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고, 별도로 설명해 주었다는 서류에는 요청사항이 항목정도로 간단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개발업체에 대강 얘기 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체에서는 기개발된 PC용 회계업무를 약간 수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거의 만들어 데모를 했더니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와 자체적으로 여러번 회의를 한끝에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고 애초에 유저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한다. 채산성이 없는 프로젝트지만, 회사의 명예를 걸고 진행시킬 의사가 없느냐고 물

이종구
한독(주) 전산실장



있더니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한다. 비용은 그간 그 정도의 인력이 소모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을 모두 받아도 시원치 않다고 한다.

결국 계약금을 되돌려 받고 용역계약을 파기하는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이 일로 해서 발주회사는 전산화가 몇 개월 늦어지게 되었고 SOFTWARE개발용역회사에 대한 불신이 늘었으며, 용역회사는 개발비용 및 회사 이미지의 손상을 입었다. 용역회사에서 수주시 좀더 명확히 업무를 DEFINE 했더라면 이 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한다.

그 얼마뒤 그 회사에서는 2배이상 가격으로 다른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먼저 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업무내용도 철저히 설명하고, 중간 진행상황도 체크해가며 중도금도 지불하는 등 순조롭게 업무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납기를 1개월쯤 앞두고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업체가 도산직전, 담당자들이 모두 이직했다.